

일주문

“한국불교 알리는 씨앗 됐으면...”

영문 사찰안내서 낸 국제포교사회 백원기 회장

“영문 한국사찰 안내서가 월드컵을 맞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귀국 후에도 한국불교를 알리는 작은 인연의 씨앗이 되면 좋겠습니다.”

12일 조계종 포교원 지원으로 한국불교 최초의 영문 사찰 안내서인 <Guide to Korean Buddhist Temple> (조계종 출판사)를 펴낸



70여 회원과 3년간 기획·집필

국제포교사회 백원기(동국대 전 자제산원 교수·사진) 회장은 “국제포교사회 70여 회원들의 손으로 3년간 기획, 집필, 번역, 편집된 해외 문서포교의 새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찰의 전각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서 하나 없던 한국의 현실에서 국제포교사회가 출간한 이 책은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템플스테이 자원봉사자, 가이드를 위한 본격적인 사찰 안내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아울러 한국 불교 관련 상용용어들이 일반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불교의 역사, 한국 고승 소개, 사찰 구조 및 예절, 불교용어 및 사찰정

보 등을 조계종 영문표기법에 따라 통일함으로써 한국불교 세계화의 기초자료 역할을 하도록 했다.

특히 정부의 표기법과는 다른 체계의 로마자 표기법인 ‘총복대 김복문 교수식 표기법’을 채택, 한국의 불교용어를 우리 언어와 똑같은 음가로 표기한 것은 국제포교의 발판을 다지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평가된다.

국제포교사회는 주요 국가의 도서관 등에 책자를 배포하는 한편, 조계종 사이트 등에 이 책의 내용을 게재해 인터넷을 통한 한국불교 홍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김재경 기자 jkim@buddhapa.com

“산행 통해 불법과 인연 맺게”

한국불교산악회 노종백 3대 회장



활동, 복지관 후원 봉사 등은 변함없이 이어갈 생각이다. 또한 행정 담당 정상근 부회장을 비롯한 각 부서의 역할을 강화해 현재 80명인 회원을 배로 늘이는 등 조직 재정비와 회원 유대 강화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65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등산을 시작해 불교와 등산의 접목을 꾸준히 시도해온 노 회장의 등

유대 강화... 수미산 등정 계획도

“산을 통해 불교의 힘을 결집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산행으로 불법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산악회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16일 부산 적십자 회관에서 열린 한국불교산악회 창립 2주년 기념행사에서 제3대 회장으로 취임한 노종백(54·무역업·사진) 회장은 9월부터 월 1회 산사 법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부산 인근 사찰을 찾아 열게 될 산사법회는 “불교 공부가 깊어지면 바른 신앙인이 된다”는 노 회장의 소신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도 노회장은 1999년 10월 창립 준비 산행 때부터 꾸준히 이어온 월 1회 정기산행, 자연보호

산 이력은 화려하다. 1977년 부산 등산학교를 설립해 등산 대중화에 앞장서 왔고 1990년에는 한일 에베레스트 최고봉 합동원정대장을 역임했다. 또한 올 2월에는 불자등반대 단장으로 네팔 히말라야 공동 봉벽 등반에 성공했다. 노회장은 전문 산악인으로서의 경력을 한국불교산악회 활동에 접목시켜 9월 해발 6400m인 티베트 수미산 등정을 계획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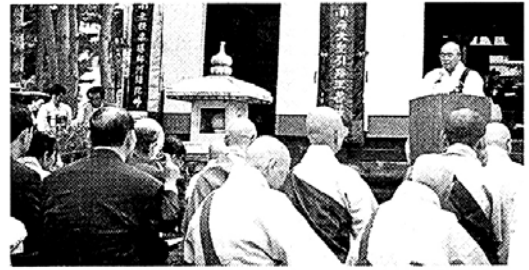
“힘든 산행은 자아 성찰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노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나’를 찾기 위한 여행과도 같은 산행과 불교공부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a.com



천태종 상월대조사 28주기 열반대제

천태종은 7일 총본산 구인사에서 중창주 상월 원각 대조사 28주기 열반대제를 봉행했다. 이날 열반대제에는 천태종 중창주 상월 원각 대조사, 총무원장 운덕 스님을 비롯 종단 스님들과 신도 등 2만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운덕스님은 “불교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상월 원각 대조사의 유지를 받들어 불교정도를 이룩하자”고 말했다. 운덕스님이 추모사를 하는 모습.



범일국사 입적 1113주기 대제 봉행

통교 범일국사 열반대제 봉행위원회(위원장 해강)는 10일 강릉 굴산사에서 청운(통도사 위운선원장) 청우(강릉사암회 회장) 스님과 심기섭 강릉시장, 방동원 관동대 교수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일국사 1113주기 열반대제를 봉행했다. 통도사 위운선원장 청운스님이 법문을 하고 있다.



제주 존자암 대웅전 상량식

제주 존자암(주지 법정)은 7일 존자암 사지 복원을 위한 대웅전 상량법회를 봉행했다. 서귀포 법문사 주지 상현스님, 민주당 조한천 의원 등 2백여 명이 참석한 법회에서 법정스님은 “이곳은 천혜의 도량으로 불자들의 원력이 모여 복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착공된 대웅전은 팔작지붕 형태로 정면 5칸, 측면 4칸 규모로 8월 중순경 완공될 예정이다.



윤이상 음악연구소 악기 지원

2546 (2002)년 6월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조계종 민추본 악기 평양 전달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정령)는 14일 서울 조계사에서 평양 윤이상 음악연구소에 전달할 악기를 상차했다. 이 자리에는 총무부장 원택스님, 사회부장 양산스님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전달되는 악기는 윤이상 음악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콘트라베이스, 팀파니 등 총 10만달러 규모다.



한·일 학술심포지엄 참가
해성 도선사 회주는 15~20일 일본 동경에서 열리는 ‘한·일 지역복지 국제학술 심포지엄’에 한국대표로 참가한다.



서경보 스님 추모제 봉행
동북 일불선교종 총무원장은 19일 오전 10시 경남 의령 일불사에서 서경보 스님 열반 6주기 추모제를 봉행한다.



‘환경의 날’ 장관상 수상
일원 동학사 승가대학장은 자연보존 운동에 힘쓴 공로로 환경의 날인 5일 환경부장관 상을 수상했다.



춘천박물관장에 임명
최용천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은 10일자로 10월 개관 예정인 국립춘천박물관장에 임명됐다.

12년간 강의료 전액 3880만원 동의대 기탁

강선태 대성한의원장



12년동안 대학 강의료 전액을 후학 양성에 써달라고 기탁한 교수가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강선태(62·前 부산불교신도회장·사진) 대성한의원 원장.

강원장은 지난 90년부터 동의대 한의학과 신경정신과에서 받은 강의료 전액을 13일 마지막 수업과 함께 학교에 기탁했다. 90년 신경정신과 개설 당시부터 시간강사로 활동하다 97년부터는 겸임교수로 강의를 해온 강원장의 총 강의료는 3천8백8십만원.

강원장의 이러한 결심은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이미 스스로와 부처님께 발원했던 것.

“금액은 비록 적지만 한의학 발전과 후학 양성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정성을 전하고 싶었다”는 강원장은 후학들 가운데 허준같은 명가가 배출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13일 마지막 강의에서 아는 만큼 행하는 것, 즉 지행합일(知行合一)의 정신을 강조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고침 본지 373호 4면 해충스님은 부산불교교육대학장이 아닌 부산불교교육대학 운영위원장으로 바로 잡습니다.

“테마별 수행프로그램 개발”

사찰수련법회 정보센터 소장 용하 스님

“3년째 운영되고 있는 수련법회 정보센터는 포교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불자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불교 수행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12일 개소식을 가진 ‘사찰수련법회 정보센터’ 소장 용하스님(조계종 포교원 포교국장·사진)은 “매년 수련법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테마별로 수행 프



일반인 참여 유치 위해 홍보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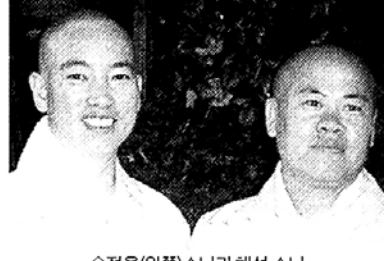
로그램이 특성화되고 있다”며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하스님은 수련법회 정보센터(www.pogyo.org, 02-720-1097) 상설화를 통해 각 사찰 및 단체의 테마별, 대상자별 수련법회 일정을 알리고 <수련법회 자료집> 증보판과 홍보 리플렛 1만부도 제작, 각 사찰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5일제 근무에 적합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서는 수련법회 실시 사찰의 2년간의 자료 분석과 수련생 설문조사 등 수련법회 운영현황 조사 및 통계 분석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사찰수련법회와 연계한 주말수련회, 시민선방, (내외국인을 위한) 템플스테이 상설화 등 다양한 사찰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장기적인 포교 전략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경 기자

“찬불가·수화 함께 가르쳐요”

‘부루나 수노회’ 발족 정율·해성 스님



다는 요청이 많아 이모임을 만들게 됐다”며 “현재 수녀님들도 배우겠다는 의욕을 보이는 등 반응이 좋아 종교의 벽을 넘어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선승가대에서 수화 강의를 하고 있

장애인 복지·포교에도 한 몫

상악가 정율 스님과 연화복지지원장 해성 스님이 찬불가와 불교 수화를 함께 배울 수 있는 모임 ‘부루나 수노회’를 만들었다. ‘부루나 수노회’는 수화로 노래한다는 뜻. 21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국방부 원광사에서 찬불가와 불교 수화를 가르친다. 정율 스님은 “음성·복지포교에 뜻이 있는 스님들과 보살들이 찬불가와 수화를 함께 배우고 싶

영산작법 전통불교의식 전문교육

불교의식에는 규모에 따라 상주권공, 시왕각배, 생전에수재, 수록재, 영산재로 나누며 간단한 불공과 시식은 안채비성으로 모든 스님들은 알아야 하는 가장 보편적인 기본의식 행위이다. 스님으로써 필수적 기본의식 이면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므로 여법하게 행하여야 한다. 전통의식으로 여법하게 행하므로 대중을 한마음으로 이끌 수 있고, 환희심을 내어 굳건한 신심으로 기도정진 할 수 있습니다. 금번 영산회 초대회로 전통불교 의식을 배우고자 하시는 스님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교육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 장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99-7 번지(운천사)
- 일 시 : 불기 2546년 음 5월 16일(양 6월 26일) 오전 10시~ 음 5월 22일(양 7월 2일)까지(일주일간)
- 접수일자 : 6월 15일 ~ 6월 22일 까지
- 교육내용 : 불공의식, 다비의식, 시련, 대령, 관음, 시식, 신중작법, 사물(탁탁, 요령, 태징, 북) 다루는법, 민바라 및 천수바라, 사다라니
- 교육비 : 5만원 (농협 175401-52-044692 : 이기영)
- 준비물 : 가사장삼, 필기구, 세면도구, 기타
- 주 최 : 영산회
- 후 원 : 태고종 광주 전남 총무원
- 법 찬 : 광주불교방송국, 현대불교신문 광주지사, 주간불교신문 광주지사
- 접수 및 문의전화 : 062) 375-1820, 011-604-8902
062) 222-4133, 016-651-6006 fax : 062) 381-0944

날 짜	시 간	교 육 내 용	강 사
6월 26일	오전 10시	입소식, 불공, 점심공양	보운스님·영산회 회장
	오후 2~5시	전체 교육내용 강의	
6월 27일	오전 09~12시	시련, 신중작법, 사물 다루는 법	보운스님
	오후 2~5시	사물 다루는 법, 민바라	영산회원 스님
6월 28일	오전 09~12시	불공의식	보운스님·영산회 회장
	오후 2~5시	사물 다루는 법, 바라구단	영산회원 스님
6월 29일	오전 09~12시	대령관음	보운스님·영산회 회장
	오후 2~5시	천수구단, 바라	영산회원 스님
6월 30일	오전 09~12시	시 식(관음시식, 영반)	보운스님·영산회 회장
	오후 2~5시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영산회원 스님
7월 1일	오전 09~12시	다비의식	보운스님
	오후 2~5시	전과정 점검	영산회원 스님
7월 2일	오전 09~12시	전과정에·복습 및 점검	회 향(수료증 수여)
	오후 2~5시		